



익산시와 베트남 꼰뚝성(崙嵒省, Kon Tum Province)이 상호 우호관계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익산-베트남 꼰뚝성, 협력 증진 MOU 체결

경제·문화·관광 분야 상호 교류 지원

익산시와 베트남 꼰뚝성(崙嵒省, Kon Tum Province)이 상호 우호관계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꼰뚝성 응우옌 반 흥 서기장과 레 응옥 두안 부성장 등 대표단 8명은 21일 익산시를 방문해 정현을

익산시장, 익산시의회 운영속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은 유대관계를 형성해 경제·문화·관광·농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고 지원하는데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베트남 '꼰뚝성'은 중부 내륙에 위치한 인구 50만 명 가량의 '성'으

로 농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면적(9,934㎢)의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고 풍광이 아름다워 주요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다. 익산시와의 지난 2018년 5월 응우옌 반 흥 서기장 일행이 익산시정을 방문해 농업과 관광 등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다지기로 협의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응우옌 반 흥 서기장 일행

이 익산시를 방문해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참관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해 전국체전 기간에 익산시를 방문해주신 꼰뚝성 대표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꼰뚝성의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돌발해충 성충기 중점방제 교육

시 농기센터, 관내 과수농가 대상

군산시가 시민들의 풍년농사를 위해 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21일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성충기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전국으로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성충의 중점방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초부터 과수원 등 농경지와 산림인접지에 대한 돌발해충 발생예찰을 실시한 결과 약충과 성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포장 발생율도 갈색날개매미충은 18%, 미국선녀벌레는 9.4%로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해충은 성충이 알을 낳기 전인 9월초까지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내년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병해충으로 인한 과수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돌발해충 방제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방제에 국도비를 포함 2300만 원을 투입해 68농가 62.4ha에 방제 약제와 친환경자재를 무상 지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돌발해충 방제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하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과원이나 산림지 방제농약이 주변 농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돌발해충은 나뭇가지에 알을 낳아 가지의 말라 죽게 하고 흡즙과 그을음병으로 과실 품질을 떨어뜨리므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알을 낳기 전인 9월초까지 적극적인 방제 1~2회 방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군산의료원, 전 직원 대상 인권경영교육

군산의료원(김정진 원장)은 지난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존엄한 사회, 존엄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이라는 주제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및 인권교육으로 전북도에서 주관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권상담도 진행했다.

군산의료원은 성공적인 인권경영의 도입·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권

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3월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중간간부 이상 감질문화 근절을 위한 자가 위험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김정진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더욱 앞장서 인건존엄의 인권경영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

31일까지 시행... 9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부과

군산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대형마트(이마트)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번 8월부터 종료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를 위해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동물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하려는 자는 관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

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1차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1차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청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8월까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8월 현재 군산시 동물등록 마릿수는 5,991마리로 이 중 1,661마리가 자진 신고 기간(19.7.1~8.20.)동안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사업자 원스톱서비스

시청·세무서 한곳서 일괄 처리

익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허가 등록등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식품위생, 문화체육분야 등 인·허가가 필요한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뉴시어산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49개 업종이다.

기준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영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특히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해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축산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익산시가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21일 사업 추진에 앞서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감효과와 기술력 등 시설의 특징을 설명하며 각 농장에 맞는 시설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업

체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5곳의 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 설치업체를 선정했다. 참여 농가들은 "우리 농장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최대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행복콜버스' 27일부터 운행

여산면 38개 마을, 수시 콜 방식

익산시는 교통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미니버스 2대를 도입해 여산면 5개리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콜버스'를 이달 27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호 차량은 원수리와 제남리, 두여리 방면을, 2호 차량은 호산리, 태성리 방면을 운행하게 되며 오전 7시~9시까지, 16시~18시까지는 5개 노선만 운행, 9시~16시까지는 호출시 언제든지 달려가는 수시 콜방식 형태로 운행된다. 이용객들은 각 마을에서 버스를 호

출해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여산면까지 행복콜버스를 이용하거나 반대로 여산면에서 버스를 호출하면 집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요금은 300원이며 출발지에서 1시간 전까지 사전예약하면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출번호 837-8383(광일여객), 834-3330(익산여객)]

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콜버스의 운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